

조선후기 백자필통 연구

류 주 형*

<목 차>

- I. 머리말
- II. 조선후기 백자필통의 출현
- III. 조선후기 백자필통의 양식적 특징
- IV. 조선후기 백자필통의 출현 의의
- V. 맺음말

국문요약

필통(筆筒)은 문방구(文房具) 중 하나로 연적(硯滴)과 함께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제작된 기물(器物)이다. 문방구는 서화를 그리고 책을 읽기 위하여 서재의 책상 위에 비치하는 기물로, 그 중 도자제 필통의 경우 모두 백자로 이루어져 있다.

백자필통은 18세기 후반부터 활발하게 제작되기 시작하여 기형, 장식기법, 문양이 점차 다양해지고 수량 또한 증가하는데 이러한 흐름은 19세기까지 이어진다. 특히 조선후기 백자필통에서의 문양은 부귀, 영화, 다산, 장수 등의 의미를 가지며 길상적인 의미를 강하게 띠는데, 이는 수요자의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백자필통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통해 백자필통이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일상품이면서도 완상용으로 만들어졌고, 길상문양을 시문함으로서 완상물인 동시에 기복과 염원의 매개체, 상징물로 기능하였음을 의미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조선 후기 백자필통의 출현은 분원의 사변화, 학문의 발달, 양반층의 확산, 사치화 경향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백자필통은 조선의 문인들이 선호하고 따르던 완상문화의 유입의 가시적 증좌이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완상문화는 문방애호사상으로 발전해 조선의 예술품에

* (주)컬처블록 더함 연구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또 백자필통은 조선시대 사대부에만 한정되어있던 백자 수요층이 확대된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 조선후기는 백자 문방구의 전성시대였던 것이다.

주제어 : 조선후기, 백자, 백자필통, 백자문방구, 문방청완

I. 머리말

필통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기 위한 붓을 꽂아두는 용기로 문방기물(文房器物) 중 하나이다. 실용성이 제작의 가장 큰 목적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선비들의 완상물(玩賞物)로도 아낌을 받았던 생활예술품이다. 이 중 백자필통은 연적과 함께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제작된 대표적인 문방기물이다. 필통은 목재, 죽재, 도자재, 나전, 석재, 금속재 등 다양한 재질로 제작되나, 도자재의 경우는 모두가 백자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 백자필통은 조선 18세기 후반에 출현하여 이후 활발히 제작되기 시작하는데, 기형, 장식기법, 문양 등이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수량도 증가하여 19세기까지 이어진다. 이는 조선 후기 분원의 사변화, 학문의 발달, 양반층의 확산, 사치화 경향이라는 시대적 배경 등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필통이 조선시대 선비들의 생활과 문화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백자필통에 대해 부분적으로 언급만 하고 있을 뿐 독립적인 주제로 연구한 사례가 거의 없다.¹⁾ 이처럼 백자필통에 관한 연구가 한국 도자사에 있어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은 것은 전세되는 유물의 수가 한정적일 뿐 아니라 제작 시기가 정확히 알려진 것이 극히 드물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선후기 백자필통이 출현한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전세되어 오는 도자재 필통을 전량 조사하여 양식적 특징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어서 문방구의 전성시대라 칭할 정도로 조선후기에 특히 백자필통이 다수 출현하게 된 의의에 대해 유추해 보고자 한다.

1) 조선후기 백자필통에 대해서 언급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한영옥, 「조선시대 필통 및 필구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1983 ; 고영미, 「朝鮮時代 紋樣을 中心으로 筆筒에 關한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1988 ; 임성룡, 「朝鮮朝 白磁 透刻 筆筒에 關한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응용미술학과, 1988 ; 황이숙, 「朝鮮後期 白磁硯滴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2003 ; 구혜인, 「朝鮮後期 陽刻白瓷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2007 ; 허인경, 「문방사우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2008 ; 정연, 「朝鮮後期 透刻白磁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2012 ; 곽중우, 「19세기 백자 문방구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2018 ; 최정민, 「조선후기 백자연적 연구」,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사학과, 2019.

II. 조선후기 백자필통의 출현

문방사우 및 필통 즉 문방구는 통일신라 이전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고려시대까지의 필통과 필구류 등은 거의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조선시대 이전의 도자필통 또한 마찬가지이다. 도자필통은 조선후기 이전 청자, 분청자기로도 제작된 사례가 없으며 백자만이 유일하다.

문방은 서재라 칭하기도 하며 서적을 갖추어 두고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방을 뜻한다. 당대(唐代)의 시인 두목(杜牧)은 “회화평생지, 서재기현유(會話平生志, 書齋幾見留).” 라는 구절이 있는데, 뜻은 “평생의 뜻을 모여 이야기하는데 서재에 얼마동안 머물러야 할는지.”라고 풀이된다. 이로 미루어 당시에 서재라는 명칭이 있었고 이곳에 모여 인생 철학을 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방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시기는 고려 중기 경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추정은 고려시대 이인로(李仁老, 152~120)의 『파한집(破閑集)』에 “문방사보”에 관한 기록으로 추정할 수 있다.²⁾ 문방이라는 용어사 쓰이긴 시작하는 고려시대 이래의 문방취미(文房趣味)의 전통은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중국 송대(宋代)와 명대(明代)의 문방청완(文房淸玩)의 전래와 함께 문방구류가 더욱 세련되고 폭넓게 보급됨에 따라 문방취미와 문방구의 의장(意匠)에도 적지 않은 변모를 가져오게 되었다.³⁾ 문방취미는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시대 초기의 선비·사대부들이 필수적 요소였으나 영·정조대의 문예부흥 분위기에 맞춰 일반에까지 널리 유행되어졌다고 보인다.

정조 3년(1783) 11월 27일 자의 『내각일력(內閣日曆)』에 11월 초 하루에 실시한 화원(畫員)의 취재(取才)에 화제(書題)로서 문방이 포함되어 있었다.⁴⁾ 이 시기에 편찬된 『경도잡지(京都雜誌)』,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등에도 문방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당시 지배층의 문방에 대한 관심도와

2) 『파한집(破閑集)』 “문방사보(文房四寶)는 모두 유자에게 소용되는 것인데 그 중에도 먹을 만들기가 가장 어렵다. 그러나 경사(京師)에는 만보(萬寶)가 모이는 곳이어서 이를 얻기가 쉽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두 귀히 여기지 않는다. 내가 맹성(猛城:맹성산성)에 출수하였을 적에 도독부(都督府)의 부(符)를 받들어 어묵(御墨) 5천정을 조공함에 있어 늦어도 봄까지는 바치게 되었음으로 급히 공암촌(孔巖村)에 가서 백성을 시켜 송연 백곡(白斛: 열말)을 채취하고 양공(良工)을 모아 직접 역사를 감독하여 두달만에 마쳤는데 맥 얼굴과 옷이 모두 연매(煉煤)의 빛이 되었으므로 다른 곳에 나아가 힘들여 몸을 씻고 나서 환성(還城)하였다. 이후로 먹을 보면 한 치쯤되는 것이라도 천금과 같이 중하게 생각하여 소홀히 여기지 못하였다.”

3) 국립중앙박물관, 『朝鮮時代 文房諸具』, 1992, 170쪽.

4) 정병모, 「조선시대 후반기의 경적도」, 『미술사학연구』192, 1991, 23~24쪽.

일반인의 문방에 대한 취향을 짐작할 수 있다.⁵⁷⁾

백자필통의 출현은 사료와 회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자기제 필통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농암집(農巖集)』⁶⁷⁾ 「찬명(竄名)」의 ‘잡기명’⁶⁸⁾에는 밥그릇, 술 단지, 등잔, 필통, 연적에 대한 명문(銘文)이 있다. 『農巖集』, 卷26, 「필통연적명(筆筒硯滴銘)」⁶⁹⁾에는 “이기가 도자기로 필통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형식을 창안해 만들었다. 그것은 사각 필통의 네 면과 밑 부분에 공간을 두어 거기에 모두 물을 넣음으로써 연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홍태유(洪泰猷, 1672~1715)의 『내재집(耐齋集)』⁷⁰⁾에는 “임도언, 조예경과 함께 도자기 만드는 것을 보러갔다. . . . 번조하여 함께 진열하는데 일상에 쓰는 그릇이다. 그 중 필통과 연적, 술잔들의 밝은 빛깔이 흰 눈 같았다. . . . 이에 조군이 장인에게 명하여 세 개의 필통을 만들도록 하고 각각 하나씩 소장하고자 하였다. 나로 하여금 그 연유를 쓰게 하였고 도언에게 글씨를 쓰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온다.⁷¹⁾ 조관빈(趙觀彬, 1691-1757)의 『회헌집(悔軒集)』⁷²⁾에서는 자기 필통에 쓴 명문(銘文)이 있다. 이 기록은 필통의 재질과 모양, 그 의미 등에 대해 노래한 내용이다.

『老稼齋燕行日記一』에는 도자필통을 구매한 기록이 있다.⁷³⁾ 그 외 대나

57) 국립중앙박물관, 『朝鮮時代 文房諸具』, 1992, 171쪽.

67) 조선 후기 병조참지, 예조참의, 대사간 등을 역임한 문신, 학자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시문집이다. 농암(農巖)은 김창협의 호를 뜻한다. 이 책은 총 42권 15책 활자본이며 부록 2권을 포함한 원집 36집, 속집 2권, 별집 4권으로 되어 있다. 여러 차례 증보 간행되었는데 원집 34권은 김창협이 사망한 다음해인 1709년(숙종 35)에 문인 김시좌(金時佐, 1664~1727) 등이 유문을 수집하고, 1710년에 아우 창흠(昌翕) 등이 활자로 출간한 것이며 김창협 서(序)가 있다.

68) 농암이 49세 때인 1699년(숙종 25) 6월 경기도 광주의 요소(窯所)에서 선고(先考) 묘지명의 지석(誌石)을 굽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도공(陶工)에게 튼튼이 몇 종의 기명(器名)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고 그것에 대한 명문(銘文)을 지었다.

69) 『農巖集』 卷26, 「筆筒硯滴銘」. “李紀陶器作筆筒. 以意創制. 令其四周及下方. 皆可受水. 用爲硯滴. 求余爲銘. 戲作此與之. 惟毛穎族. 非水不活. 苟遠難繼. 則或病渴. 善哉陶公. 爲爾卜宅. 一室虛白. 水周四壁. 取之至近. 不勞綆汲. 宜爾世食. 爲湯沐邑.”

70) 『耐齋集』 卷4, 「題沙筒」. “余偶携任姨弟道彦. 過曹姨. 弟禮卿于監盜. . . 俄又燔出而陳于前. 日用器皿百種皆在. 又其中. 筒于筆. 滴于硯. 壺觴于酒. 皆文房所須. 而觀其色. 皜皜然玉雪照眼. 殊不覺泥土中陶出此光景也. . . 曹君乃命匠手成三筒. 將各藏一焉. 又俾余記其由. 而道彦書其表. 欲令異日子孫觀者. 知此筒之成. 自吾三人者始也.”

71) 광종우, 「19세기 백자 문방구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2018, 30.

72) 『悔軒集』 卷15, 「瓷筆筒銘」. “法河陶. 取糞土. 厥器古. 需文房. 館毛生. 其用清. 出以時. 功斯普. 觀所主. 森袞鉞. 煥圭璧. 賢哉客.”

73) 『老稼齋燕行日記一』 卷1, 「往來總錄」. “구매한 문방구와 기완으로는 동향로, 시저병, 자기 필통, 자기 향로. . . 이다(所買文房器玩. 銅香爐. 匙箸瓶. 磁筆筒. 磁香爐. 水晶研. 山文石. 花梨. 碁奩. 犀角一. 藤鞭三. 墨匣一. 朱紅墨八).”

무, 옥, 재질미상의 필통도 여럿 확인된다.¹³⁷⁾ 더불어 필통이 문인의 자세와 마음을 바로 잡아주는 상징적인 도구로도 사용된 정황도 기록되었다.¹⁴¹⁾¹⁴⁵⁾ 이러한 기록들로 보아 조선시대 이전부터 쓰이던 필통은 조선 18세기에 들어 문인들의 관심 속에 도자, 즉 백자로 제작되기 시작하며 이는 이후로도 꾸준히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다양한 회화 속에서 백자필통이 등장하는데 이는 백자 필통 출현을 뒷받침할 근거가 된다. 백자필통이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회화로는 유숙의 <수계도권(修禊圖圈)>¹⁴⁶⁾이 있다. 유숙(劉淑, 1827~1873)이 1853년에 그린 <수계도권>은 중국의 난정수계도(蘭亭修禊圖)의 전통을 바탕으로



그림 1. 유숙, <수계도권> 백자필통

1853년 3월 3일 시회(詩會) 광경을 개최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석자들 앞에 위치한 탁자 위에 사각의 투각필통과 묵호가 놓여 있다. 직사각형의 몸체에 격자 문으로 투각한 필통의 모습은 현존하는 사각형 투각필통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며 19세기 중엽 경 이러한 사각형 투각필통이 생산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어 백자필통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회화는 책가도(冊架圖)¹⁴⁷⁾이다. 다만

137) 『悔軒集』 卷15, 「竹筆筒銘」. “我有友. 毛先生. 號管城. 海之外. 同行. 太多情. 我則謫. 爾亦羈. 吁可悲. 乃館爾. 使居斯. 性相宜. 豈無材. 必以竹. 取其直. 友之道. 資厥德. 窮益確.”; 『樊巖集』 卷58, 「筆筒銘」. “中虛非虛. 虛故能實. 實之伊何. 四友之一. 爾能友直. 其有聞聖人之說者耶.”; 『靑莊館全書』, 卷4. 「竹筆筒銘」. “永叔附三大竹爲筆筒. 贈我. 筆管小竹. 筆筒大竹. 大竹三合. 可容筆百.”; 『金陵集』 卷11, 「玉筆筒銘」. “余余有筆筒玉也. 其形也象以天之圓而地之方也. 故圓乎外而方其內. 治之者益求其美. 既琢而復磨之. 此余所以愛之甚. 而人之修身當如是云. 銘曰. 治之而美. 載筆乎爾. 豈愛玉也. 愛爾之琢而磨而.”; 『研經齋全集』 卷15, 「花梨筆筒銘」. “和隱李時恒雲山人也. 嘗從使臣入燕. 得花梨筆筒以歸. 和隱沒而無子. 其族人賣之. 先君子時在雲山任所. 重價以得之. 在余家. 贊曰. 爾之災矣. 我之寶矣. 出自何山. 爲此玩好. 器無常主. 唯有文者得之. 戒吾子孫. 唯估畢是篤.”

141) 朱彝尊, 「筆筒銘」. “붓이 책상에서 기울어지거나 바르게 놓지 않으면 사람에게 예 의가 없는 것과 같다. 필통으로 정리하면 나그네가 집을 얻은 것과 같이 한가롭게 마음이 놓여 사악함이 없는 경지로 돌아간다.” 정연, 「朝鮮後記 透刻白磁 研究」(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2), 각주 95)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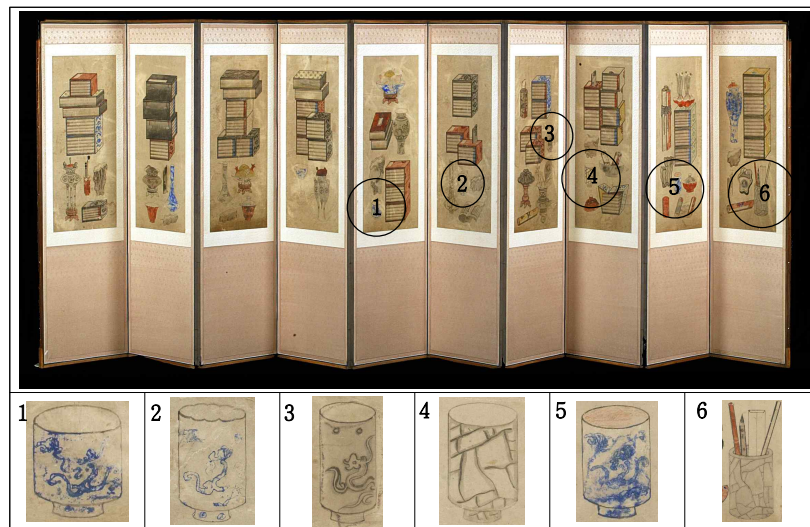
145) 광중우, 「19세기 백자 문방구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2018, 30쪽.

146) 유숙, <수계도권>, 1853, 지본담채, 28.3x225.5, 개인소장

147) 책가도는 책장과 서책을 중심으로 각종 문방구, 골동품, 기물, 화훼 등을 그린 그림이다. 책가도의 또 다른 명칭은 책거리(冊巨里), 책거리그림, 문방도(文房圖), 문방기명도(文房器名圖),

책가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당시 백자필통을 포함한 백자를 애호하여 문방구 제작이 성행했다는 것을 추정하는 정도로만 활용한다. 조선후기 다양한 책가도 중, 백자필통이 등장하는 것으로는 <문방도 10폭 병풍>¹⁸⁾, <문방도 10폭 병풍>¹⁹⁾, <책가도 6폭 병풍>²⁰⁾, <책가도>²¹⁾ 등이 있다. <문방도 10폭 병풍>은 백자필통이 가장 많이 그려진 회화이다. 총 6점의 백자필통이 그려져 있는데 청화기법과 철화기법 등으로 장식했으며 문양은 당초문, 빙렬문을 시문하였다.

표 1. <문방도 10폭 병풍> 속 필통



백자필통이 그려진 책가도 중 작가가 밝혀진 작품으로는 <책거리 10폭 병풍>, <책가도 6폭 병풍>이 있으며 작가는 이형록이다. 이형록(李亨祿, 1808~?)²²⁾은 조선후기에 도화서 화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863년까지 생존하였음을

서가도(書架圖), 책탁문방도(冊卓文房圖) 등 여러 가지가 있다.
 18) <책가도 병풍>, 19세기~20세기 초, 비단에 채색, 병풍 세로 98.7cm, 가로 301.2cm, 화면 세로 74.5cm, 가로 294.1cm, 국립고궁박물관
 19) <문방도 10폭 병풍>, 가로 35.5cm, 세로 73cm, 국립민속박물관
 20) 이형록, <책가도 6폭 병풍>, 병풍, 조선, 가로 288cm, 세로 204cm, 국립민속박물관
 21) 전 이형록, <책가도>, 세로 152.7cm, 가로 32.7cm, 가로 35.8cm, 국립중앙박물관
 22) 이형록은 이름을 태균이라 개명하였다. 1863년까지 생존하였음을 그 해에 사정(司正)의 녹봉을 받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고조부 이성린(李聖麟)·조부 이종현(李宗賢)·부친 이운민(李潤民)·숙부 이수민(李壽民)이 모두 화원으로 조선시대 대표적인 화원집안에서 성장하였다. 25세에 차비대령화원으로 차출되어 순조에서 철종대까지 궁중화원으로 활동했으며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냈다.(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 역대 서화가 사진』, 2011)

그 해에 사정(司正)의 녹봉을 받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형록이 그린 <책거리 10폭 병풍>, <책가도 6폭 병풍>은 19세기 중반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2. 이형록, <책거리 10폭 병풍>, <책가도 6폭 병풍> 속 필통



III. 조선후기 백자필통의 양식적 특징

도자사에서 조선백자의 시기를 구분하는 견해는 다양하다.²³⁾ 많은 견해 중 본 논고에서는 정양모의 시기구분을 참고하여 조선후기를 1752년~1910년으로

²³⁾ **김원룡** - 전기 (1392~1562) : 분청사기시대 1. 분청사기(상감분청계와 백사분청계)의 제작 2. 백자, 청화백자의 제작(번천리 · 우산리 · 도마리 요), 후기 (1563~1883) : 청화백자시대 1. 금사리 요 시대(1562~1752) 2. 분원리 요 시대(1752~1883) **정양모** 1. 전기(태조 초년 : 1392~인조 말년 : 1649) : 태조(1392~1398)~세종(1418~1450) : 경질 백자 완성, 세조(1455~1568)~인조(1623~1649) : 청화 백자 완성, 쇠퇴, 태조(1392~1398)~선조 25년(1562) : 분청사기의 발생, 발전, 쇠퇴, 종언 2. 중기(효종 초년 : 1650~영조27년 : 1751) 1680년대~영조27년(1751) : 중기 백자 완성, 숙종 43년(1717)경~영조27년(1751) : 중기 청화백자의 완성 3. 후기(영조 28년 : 1752~순종 말년: 1910) 고종 21년(1884)~20세기 초 : 분원 민영화시대 **강경숙** 전기(1392~1600년경) : 제1기(1392~1469년), 제2기(1469~1600년경), 중기(약 1600년경~1751년), 후기(1752~1883년), 말기(1883~1950년) **김영원** (분원 설치 이전) 1기 : 1392~1417년경 : 약 25년 간(태조~태종 17년경) 2기 : 1417~1568년경 : 약 50년 간(태종 17년경~세조연간) (분원 설치 이후) 3기 : 1568~1544년경 : 약 75년 간(예종~중종연산) 4기 : 1544~1562년경 : 약 50년 간(인종~선조 25년경) **윤용이** 1. 초기(1392~1550) : 분청자 중심 시기 2. 중기(1550~1700) : 회백색의 백자, 철화백자의 중심 시기 3. 후기(1701~1910) : 유백 · 청백색의 백자, 청화백자의 제작 시기, 용기 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짐

지정했다. 연구 대상에 있어서 백자필통은 절대연대의 유물이 많지 않아 시기적 양상을 고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에 제작된 백자 필통의 전 세유물을 대상으로 기형과 장식기법, 문양을 통해 양식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백자필통은 지통과 형태의 구분을 쉽게 할 수 없어 뚜렷한 구분없이 혼동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필통의 구경(口徑)이 저부(底部)보다 더 넓고 퍼져있는 것, 높이가 20cm를 넘는 것을 지통으로 기준을 잡고 구분하였다. 우선 연대가 정확한 백자필통은 2점이 있는데 이를 통해 이 시기의 백자필통에 대한 확실한 특징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백자청화양각호문'丁酉十一月造作'명필통>이며 양각청화기법이 사용된 양각원형필통 유형이다. 굽은 투각하였고 동체에는 나무와 괴석, 초화, 호랑이 한 마리, 학 두 마리가 양각과 청화기법으로 시문되었다. 저부에는 '丁酉十一月造作'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청화와 유색의 발색은 전형적인 분원리 시기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어 1837년으로 추정한다.²⁴⁾ 양각과 청화기법을 함께 사용해 장식성을 더했으며 전체적으로 정교하게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백자청화투각운용문'丙午七月日'명필통>은 투각기법으로 장식되었으며 저부에 '丙午七月日'의 명문이 있어 제작연대를 1786년 혹은 1846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왕실에 한해서 사용된 운용문이 대중화되는 양상을 볼 때 1846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²⁵⁾ 따라서 연대가 명확한 이 2점의 백자필통을 통해 당시 백자필통의 양식을 알 수 있다.

표 3. 백자필통 절대연대유물

	
<p>백자청화양각호문'丁酉十一月造作'명필통 조선 1837년 高 18.1cm 口徑 16.4cm 일본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p>	<p>백자청화투각운용문'丙午七月日'명필통 조선 1846년 高 11.7cm 우학문화재단</p>

²⁴⁾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東洋陶磁の展開』, 大阪市美術振興協會, 1982, 192쪽.

²⁵⁾ 박중우, 「19세기 백자 문방구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2018, 133쪽.

조선시대 백자필통의 기형은 크게 두가지, 원통형과 상형, 각형으로 구분된다. 그 중 원통형이 상형과 각형에 비해 현저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원통이 물레를 사용해서 제작하는데 편리하고 붓 등을 꽂는데 가장 편리하다는 기능적인 이유로 짐작된다. 원통형 백자필통에서 굽이 있는 필통이 있는데 이는 현존하는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시에 많이 제작되는 기형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인 기형에서 변형되어 발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백자필통 중에는 상형필통도 존재한다. 상형백자란 어떠한 물건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백자이다.²⁶⁾ 상형백자필통은 모두가 원통형으로 대나무 형태를 본 따서 만든 죽형 필통이다. 두 필통 모두 동체부에 대나무 마디를 표현해서 대나무 형태를 제작했다. 백자필통에서 양각기법을 사용해 죽절을 표현한 것이 있으나 상형백자필통은 이와 다르게 필통의 기형 자체를 대나무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며 상형백자라 할 수 있다.²⁷⁾

각형은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으로 나뉘어진다. 사각형 백자필통은 거의 대부분 투각기법으로 기하문이 표현되었으며 필통 하부(下部)에는 굽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육각형 필통의 기형은 육각형이나 붓을 꽂는 내부는 원통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각형 필통과 마찬가지로 하부에 굽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며 팔각형의 필통도 이와 유사한 기형을 가진다. 백자 사각병의 제작은 금사리 가마 이후인 분원 가마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각형자기의 제작은 이후 분원리 가마로 이어져 제작 기술의 변화와 더불어 외래자기 유입 등의 영향으로 다종다양하게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²⁸⁾ 특히 조선에서는 18세기 이후 병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청화, 양각, 단색채 기법 등을 사용해 문양의 종류가 다채로워졌으며, 특히 각병(角瓶)이 많아졌음에 주목된다.²⁹⁾는 점에서 각형백자필통은 백

²⁶⁾ 상형자기는 고려시대 청자에서 자주 만들어졌던 기종으로 조선시대에는 그전만큼 다양하게 제작되지는 않았다.






²⁷⁾ 경공장 중 대나무 관련 공예에 관한 장인으로 죽장이 따로 명명되어 있듯이 죽공예가 성행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애호풍조가 일부 문헌에 드러나 있다. 국내에서는 대나무를 식재하기 좋은 토양의 조건을 갖춘 곳이 많지 않았다. 이에 대나무가 크게 자라지 못해 주로 가는 죽편을 이어 붙여 기하학적 문양을 이룬 죽장기법이 발달했다. 이 공예기법은 손이 많이 가고 이러한 기술을 가진 장인이 적은 편으로 부를 축적한 일부 계층에서 향유했던 기물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죽공예품을 인식하고 있는 계층에서 값비싼 죽공예품 대신 도자기로 모방한 필통을 주문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정연, 「朝鮮後期 透刻白磁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2012)

²⁸⁾ 박혜선, 「조선 후기 백자 사각병의 연원과 조형 특징」, 미술사연구회 『미술사연구』37, 2019, 111~113쪽.

²⁹⁾ 장남원, 「朝鮮後期 靑畫白磁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1988, 72쪽.

자필통의 출현 및 성행한 시기를 뒷받침해 줄 근거가 되기도 한다.

표 4. 백자필통 기형분류

원통형	상형 (죽형)	각형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백자투각운용문 필통> 高: 12.4cm 口徑: 11.8cm 국립중앙박물관	<백자죽형필통> 高 12.8cm 口徑 8.1cm 국립중앙박물관	<백자투각귀갑문 사각형필통> 19c 국립중앙박물관	<백자청화시명육각형필통> 18c 국립민속박물관	<백자청화팔괘문 팔각형필통> 18c 高: 12.6cm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백자필통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장식기법과 문양이다. 장식 기법을 특성에 따라 청화기법, 철화기법, 동화(진사)기법의 회화적 기법, 그리고 음각기법, 양각기법, 투각기법의 조소적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백자필통의 장식기법으로는 투각기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투각백자필통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을 증명한다. 투각백자필통은 투각기법만을 사용한 것 뿐 만 아니라 사실적인 표현과 장식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음각기법, 양각기법, 청화기법 등의 다양한 기법을 가미하여 장식된 것이 특징이다. 조선후기 백자필통에서 투각기법이 가장 많이 사용됐던 이유는 가장 장식적인 기법으로 화려하게 문양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필통은 문방에서 장식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장 장식적인 투각기법을 사용하여 제작함으로써 완상품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조선후기 사치품으로 여겨지던 청화백자가 금해졌을 시기에는 양각기법을 이용해 백자를 장식했다. 이후 다시 청화백자가 다시 많이 만들어졌지만 이전의 명성을 이어갈 정도는 아니었으며 그 시기 양각기법과 함께 투각기법이 성행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화려하게 제작되는 필통들은 대부분 투각기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표 5. 조선후기 백자필통 장식기법별 분류

소문(素文)	철화(鐵華)	청화(靑華)
		
<백자필통> 국립중앙박물관	<백자철화기하문필통> 국립중앙박물관	<백자청화매죽문필통> 국립중앙박물관
양각(陽刻)	음각(陰刻)	투각(透刻)
		
<백자양각포도문필통> 국립중앙박물관	<백자청화음각과초문필통> 국립중앙박물관	<백자투각운용문필통> 호림박물관

백자필통은 거의 대부분 유문백자(有紋白磁)이며 그 사유는 필통이 실용적 기물이긴 하지만 동시에 문방(文房)에서 장식적인 특징을 가지며 완상물로 쓰였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백자필통에 시문된 문양은 식물문(植物紋), 동물문(動物紋), 회화문(繪畫紋), 기하문(幾何紋) 등으로 그 중 식물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조선후기 백자필통 중 가장 많이 시문된 식물문으로 종류로는 사군자문(四君子紋), 난초문(蘭草紋), 매화문(梅花紋), 죽문(竹紋), 죽절문(竹節紋), 소나무문[松紋], 포도문(葡萄紋), 초화문(草花紋), 모란문[牡丹紋], 과초문(芭蕉紋), 연화문(蓮華紋), 연화당초문(蓮華唐草紋), 복숭아문[桃子紋], 불수감문(佛手柑紋) 등이 있다. 백자필통에 시문된 식물문은 크게 사군자문(四君子紋)³⁰⁾과 초화문(草花紋), 과실문(果實紋)으로 구분되며 그 가운데에서도 포도문, 사군자문이 많이 나타난다. 동물문에서는 용문이 가장 많이 시문되며 봉황문과 호문이 뒤를 잇는다.

³⁰⁾ 덕과 학식이 있는 사람을 군자(君子)라고 한다. 춘추전국시대에 뜻이 높은 맹상군(孟嘗君)·평원군(平原君)·신릉군(信陵君)·춘신군(春申君) 네 사람을 지칭하여 그들의 덕망(德望)을 받들기 위해 부른 말로서 사군자란 본래 인물을 가리킨다. (김종태, 『동양화론(東洋畫論)』, 일지사, 1997)



그림 2. 리움 소장
<백자청화사문자문필통>

사군자문은 매화(梅花), 난초(蘭草), 국화(菊花), 대나무[竹] 등의 네 가지 식물을 일컫는 말이다. 사군자문은 식물마다의 장점을 군자(君子), 학식과 더불어 덕(德)을 갖춘 사람의 인품에 비유할 때 쓰인다. 매화는 이른 봄에 추위를 뚫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 난초는 깊은 산중에서 자신의 향기를 은은하게 퍼뜨리며 국화는 늦가을에 추위를 이겨내고 첫 번째로 핀다. 마지막으로 대나무는 모든 식물이 시드는 추운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 사

군자문이 이 시기에 많이 시문되는 사유는 문인 수요층과의 연관성이라 할 수 있다. 사군자문은 문양의 특성상 회화성이 짙어 주로 청화기법으로 시문되며 일정한 간격을 두고 4개의 문양이 동시에 시문되는 사례가 많다. 다음으로 많이 시문되는 파초문은 초화문에 속하며 겨울이 되면 말라 죽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이듬해 봄이 되면 새순이 다시 나오는 특성을 따라 장구(長久)와 기사회생(起死回生)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파초문은 주로 투각기법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더욱 생동감 넘치며 장식적인 필통으로 완성되었다. 과일문중 가장 많이 시문된 포도문은 한 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는 식물로 풍요를 상징하며 어디에서든 잘 자라고 겨울철에도 쉽게 죽지 않아 강인한 생명력을 뜻하기도 한다. 또한 포도덩굴이나 주렁주렁 달린 열매는 연속되는 수태 및 다산을 상징해 가문번창과 자손번성을 뜻하기도 한다. 동물문에서는 가장 많이 시문되는 용문, 봉황문, 호문이다. 그중 용문은 가장 많이 시문되는 문양으로 대부분 구름과 함께 표현되어 운용문으로 시문된다. 용문은 신비로운 존재로 비유되어 왕이나 황제 등 최고의 권력자, 왕권을 상징하여 주술적 의미로 여겨져 왔다. 봉황문은 태평성대를 소망하며 예로부터 덕(德), 의(義), 인(仁), 신(信), 정(正)을 지녔다고 하여 상서(祥瑞)로움의 상징으로 장식 등에 많이 쓰였다. 호문은 절대적인 권위와 힘, 명예, 관직의 의미를 지녔다.



그림 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자투각파초문필통>



그림 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자청화투각용문필통>

조선후기 백자필통에 주로 시문되던 문양은 길상적인 의미를 강하게 띠는데, 이는 수요자의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백자필통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백자필통에서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각종 미술, 생활품에 시문되는 문양은 대부분 부귀, 영화, 다산, 장수 등의 의미를 가지며 길상의 염원(念願)이 담겨있다. 길상문에서 길상(吉祥)이란 『주역』의 계사(繫辭)에서 ‘길상유상(吉祥有祥)’의 줄인 말로 운수가 좋은 징조나 좋은 일이 있을 조짐을 의미한다. 길상문으로는 상상속의 동물을 사용하거나 일상생활 중 접할 수 있는 꽃에 의미를 담아 상서로움을 바라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경향은 백자필통에서도 이어졌고, 백자필통에는 다양한 길상문이 시문되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백자필통은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일상품이면서 완상용으로 만들어졌고 길상(吉祥) 문양을 시문함으로써 완상물인 동시에 기복(奇福)과 염원(念願)의 매개체, 상징물의 기능하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IV. 조선후기 백자필통 출현 의의

예술이 시대의 산물(産物)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이유는 한 작품의 탄생이 바로 그 시대적 여건을 바탕으로 잉태되기 때문이다.³⁷⁾ 백자필통은 조선 시대의 산물이며 당시의 경제적 상황, 사상적 동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조선시대 백자필통의 출현 의의에 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37) 최경화, 「19世紀 靑畵白磁의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1994, 19쪽.

1. 완상문화의 유입의 가시화

조선의 문인들은 다양한 사행을 통해서 중국의 완상문화를 실견하였다. 이러한 완상문화는 조선의 예술품에 큰 영향을 끼치며 백자필통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조선후기 백자 문방구가 발달하게 된 이유는 이와 같은 완상문화의 유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전에는 제작된 유례가 없는 백자 필통의 출현은 조선후기 완상문화의 유입을 가시화시킨다. 고려시대 이래의 문방취미(文房趣味)의 전통은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중국 송대(宋代)와 명대(明代)의 문방청완(文房淸玩)³⁵⁷⁾의 전래와 함께 문방구류가 더욱 세련되고 폭넓게 보급됨에 따라 문방취미와 문방구의 의장(意匠)에도 적지 않은 변모를 가져오게 되었다.³⁵⁸⁾ 문방구에 대한 관심은 고전문화의 감상과 문학적 성취가 두드러졌던 송나라 때에 높아졌으며, 문방구 애호 취미는 문인 취향과 결부되어 명·청대로 이어졌다. 명말(明末)에는 재야 문인들을 중심으로 종래의 문인문화 전통을 생활화시켜 이를 완호(玩好)하고 일상적 습속으로 즐기는 풍조가 크게 성행하다. 명말의 문인문화 풍조가 조선에 알려지고 해지기 시작한 것은 선조대(宣祖代, 在位:1567-1608)이래부터다.³⁵⁹⁾

이러한 문방 애호문화는 조선시대 초기의 선비·사대부의 필수적 요소로서 갖추고 있었으나 영·정조대에 문예부흥의 분위기에 맞춰 일반에까지 널리 유행되어졌다고 보인다. 정조 3년(1783) 11월 27일 자의 『내각일력(內閣日曆)』에 11월 초 하루에 실시한 화원(畫員)의 취재(取才)에 화제(書題)로서 문방이 포함되어 있었다.³⁶⁰⁾ 이 시기에 편찬된 『경도잡지(京都雜誌)』,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등에도 문방이라는 항목이 들어있는 것으로 미루어 당시 지배층의 문방에 대한 관심도와 일반인의 문방에 대한 취향을 짐작할 수 있다.³⁶¹⁾ 문방도구를 사용하는 취미는 사대부의 오랜 관례로 문방도구의 사치는 사대부들에게 아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료가 많이 남아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흙영(欽英)』에 나타난다. “저택에 사치를 부이면 귀신이 엿보고,

357) 유가(儒家)나 도가(道家)적 사유를 지향하는 사대부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신의 높은 이념을 일상에서도 일체시킨다는 건실한 삶의 태도였으며, 중인이나 서민에게 있어서는 탈속적 삶을 스스로 즐길 줄 아는 교양인임을 드러내주는 수준 높은 기호·취미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청화, 푸른빛에 물들다』, 2014.)

358) 국립중앙박물관, 『朝鮮時代 文房諸具』, 1992, 170쪽.

359) 홍선표, 「조선후기 회화 애호풍조와 鑑評活動」, 『미술사논단』5, 한국미술연구소, 1997, 119~138쪽.

360) 정병모, 「조선시대 후반기의 경직도」, 『미술사학연구』192, 1991, 23~24쪽.

361) 국립중앙박물관, 『朝鮮時代 文房諸具』, 1992, 171쪽.

먹고 마시는 데 사치를 부리면 신체에 해를 끼치며, 그릇이나 의복에 사치를 부리면 고아한 품위를 망가뜨린다. 오로지 문방도구에 사치를 부리는 것만은 호사를 부리면 부릴수록 고아하다. 귀신도 너그러운 눈감아 줄 일ियो 신체도 천안하고 깨끗하다.(棟宇之奢, 鬼瞰之也; 食醜之奢, 身之賊也; 器服之奢, 雅遠之品折也. 獨文房之奢, 奢而愈雅, 鬼所寬恕, 身以寧清.)³⁷⁾ 라는 부분은 문방구가 조선시대 골동완상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품 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료이다. 또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 활발해진 대외무역을 통해 다량의 중국·일본 도자기가 유입되었고 부유한 문인 사대부 사이에 향(香)을 피우고 차를 마시며 서화를 즐기고 문방구, 골동품, 서책, 분재, 수석을 수집하여 명승지를 유람하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문인문화의 수용 속에서 풍류완상품이 크게 애호되었다.

2. 백자 수요층의 확대

백자필통의 출현은 백자의 대중화를 뜻하기도 한다. 17세기 말부터 사변이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문방기명을 포함한 백자의 사변에 대한 기록도 전해지고 있어 당시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기물의 백자가 제작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 점차 늘어 18세기에 들어서는 상인자본이 개입하기에 이르며, 이는 백자 사용계층의 다양화, 곧 백자의 대중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에는 그 규모가 더욱 늘어나 1884년(고종 21)에는 결국 상업자본가에 의해 분원의 민영화(閔泳化)로 바뀌게 된다.

분원은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군일대에 설치된 사용원(司饗院)의 관영 사기제조장(官營沙器製造場)이다. 국가에 필요한 관어용(官御用) 도자기의 조달은 15세기 전반경에는 전국의 자기소(磁器所, 139개소)·도기소(陶器所, 185개소)에서 토산공물로서 세공(歲貢)·별공(別貢)의 방법으로 충당하였고, 15세기 후반경부터는 도자기의 제작을 국가가 직접 담당하여 사용원의 분원을 상품자기(上品磁器)의 토산공물산지인 경기도 광주에 설치하고 국가가 직접 충당하였다. 사용원은 본디 왕에게 어선(御膳 : 음식)을 올리는 일과 기타 대궐 안에서의 음식 제공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곳으로, 그에 필요한 어용 및 궁중 소용의 기명(器皿)의 제작이 그 소관이었음을, 『경국대전』 공전(工典) 경공장(京工匠) 사용원조에 사용원 소속 자기장이 380인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관영 사기제조장은 설치할 때부터 사용원에서 직접 관장하였으며, 어용

37) 유만주(兪晩柱), 『흙영(欽英)』, 1780년 6월 15일 기사.

및 궁중에서의 사기 수요량이 증가됨에 따라 제조작업 자체가 중요시됨으로써, 직접 현지에서 작업을 관할하는 관청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원의 분원이라고 불렀다.

이와 같이 분원의 사기 제조는 원칙상 어기(御器)의 공급을 위한 것으로 대개 해동기로부터 결빙기까지 계속되었으며, 봉사(奉事, 종8품)가 관리하였다. 1년간의 생산량은 일정하지 않았으나 별번(別燔) 이외에 예번(例燔)인 경우 『육전조례』에 따르면 1,372죽이었다. 정규적인 진상 사기는 왕궁 소용의 일반용기, 봉상시(奉常寺)의 제기, 내의원(內醫院)의 제약용 등이며, 이 밖에도 가례 등 왕가의 경사에 사용되는 특수사기가 있다. 분원은 약 10년을 주기로 번목(燔木: 떨감)을 대기 위하여 수목이 무성한 곳을 찾아 이동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정한 산지(山地)를 경기도 광주지방을 중심으로 지급받았으니 그것이 분원시장절수처(分院柴場折受處)이다. 분원시장은 퇴촌면·실촌면·초월면·도척면·경안면·오포면 등 광주 6개면이며, 이들은 조선시대 말까지 변동없이 계속 분원에 소속되었고, 분원도 6개면 안에서 이동하였다. 분원이 설치되어 수목을 한번 채취한 곳은 무성하여질 때까지 비워두었다가 다음에 다시 그곳에 분원을 설치하여 수목을 채취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한번 분원이 설치되어 수목을 채취한 곳은 곧 화전으로 개간되었기 때문에 시장은 차차 줄어들고 대신 화전이 늘어나 광주지방의 분원시장은 차차 화전으로 변하고 연료 공급이 끊겨 사기 제조를 계속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17세기 말경에 분원을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고정하여 두고 반대로 번목을 분원으로 운반하여 사용하고, 시장 안의 화전민들로부터 세를 거두어 번목 조달에 이용하자는 의견과 함께 분원고정론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곧 실현되지 못하고 18세기 전반경에야 교통이 편리한 경안천(慶安川: 牛川) 연변으로 옮김으로써 대개 지금의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분원리에 고정된 것이다.³⁸⁾ 이렇게 분원의 설치는 조선시대 도자기의 전국적인 생산 및 수급체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동인이 되었다.

조선은 신유교(新儒敎)인 성리학을 국가 이념과 학문의 배경으로 삼았고, 대외적으로는 친명을 표방하여 새 문물을 받아들였다.³⁹⁾ 성리학을 사상적 근간으로 생각했던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주된 생활 기명은 백자였다.⁴⁰⁾ 숙종, 영조대를 거쳐 분원이 정비되고 공인(工人)들의 사반이 실제적으로 허용되며 분원 백자의 수요층은 왕실을 넘어서 사대부, 중인을 비롯하여 서민층에까지 확대되었다. 수

38) 윤용이, 「조선시대 분원의 성립과 변천에 관한 연구 1」, 『고고미술』 149, 한국미술사학회, 1981

39) 강경숙, 『한국 도자사』, 예경, 2012, 320쪽.

40) 방병선, 『조선후기 백자연구』, 일지사, 2000, 11쪽.

요층 확대에 의해 이 시기에는 다양한 기명이 생산되기 시작한다. 특히 이 시기 발달한 회화에서 자주 나타나는 주제들이 도자기에 그대로 옮겨져 실용기인 동시에 완상기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보여준다. 또, 골동품과 중국 도자에 대한 애호로 인해 조선도자에도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⁴¹⁾

한편 영·정조대에는 상업과 경제가 발전하였으며 19세기에 들어서는 도자 양식도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경향을 띠게 되었다. 백자는 장식적 경향이 짙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양식의 변화는 수요층의 변화와 연관된다. 특히 정조시대의 우문정책(右文政策)의 결과로 중인사회의 성장과 신장은 물론 중인층의 예술 활동을 보다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⁴²⁾ 또한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적 발달 속에 부상한 중인층은 문화향유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했다. 왕실을 비롯한 경화사족이라 일컬어지는 서울 거주 사대부와 중인계층은 거듭된 연행(燕行)과 수입 중국 문물에 경도되어 새로운 기호의 백자를 선호하였다. 이들의 기호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분원 자기뿐 아니라 지방 사기와 중국이나 일본에서 수입된 자기를 사고파는 기전(器塵)이 서울 여기저기에 세워지게 되었다. 사번이 허용된 분원 역시 왕실에 진상하는 자기 이외에 이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그릇 생산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⁴³⁾ 이렇듯 조선 후기에는 기존 지배계층으로만 한정되었던 고급 도자기가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었고 이를 향유하는 계층 역시 다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필통 즉 문방구는 통일신라 이전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고려시대까지 필통과 필구류 등은 거의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특히 도자필통의 경우 청자, 분청자기로도 제작된 사례가 없다. 조선후기의 백자필통만이 유일하다고 하겠다. 이처럼 백자필통이 조선후기에 출현하게 된 원인으로는 이 시기 분원의 사변화, 학문의 발달, 양반층의 확산, 사치화 경향과 같은 시대적 배경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41) 송영은, 「正祖의 도자인식과 18세기 후반 조선의 도자 생산」, 『한국학연구』49,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130쪽.

42) 윤종일, 「조선후기 중인층(中人層)의 예술관 검토 - 18, 19세기 '서화론'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56,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143~144쪽.

43) 방병선, 「조선 19세기 서울의 도자」, 『도시역사문화』 8, 서울역사박물관, 2009, 40쪽.

백자필통은 조선 후기에 제작되기 시작하여 18세기 후반부터 활발하게 제작되었다. 기형, 장식기법, 문양이 다양해지며 수량 또한 증가하는데 이러한 흐름은 19세기까지 이어진다. 조선후기 백자필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기법은 특히 장식적이며 화려한 투각기법으로, 이는 필통이 문방 가운데 감상을 목적으로 한 완상품으로의 역할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조선후기 백자필통에 시문된 문양은 부귀, 영화, 다산, 장수 등의 의미를 가지며 길상적인 의미를 강하게 띄는데, 이는 수요자의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백자필통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길상문으로는 상상속의 동물을 사용하거나 일상생활 중 접할 수 있는 꽃에 의미를 담아 상서로움을 바라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통해 백자필통이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일상품이면서 완상용으로 만들어졌고, 길상문양을 시문함으로써 완상물인 동시에 기복과 염원의 매개체, 상징물로 기능하였음을 의미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백자필통은 조선후기에 새롭게 출현한 문방구로서, 출현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완상문화 유입의 가시화이다. 조선 문인들의 완상문화는 조선의 예술품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백자필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조선후기 백자 문방구가 발달하게 된 이유는 이와 같은 완상문화의 유입 및 성행에 의해서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전에는 제작된 유례가 없는 백자필통의 출현은 조선후기 완상문화 유입의 가시적 증좌이기도 하다. 둘째, 백자 수요층의 확대를 상징한다. 성리학을 사상적 근간으로 생각했던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주된 생활 기명은 백자였으며 숙종, 영·조대를 거쳐 분원이 정비되고 17세기 말부터 공인(工人)들의 사변이 실제적으로 허용되며 분원 백자의 수요층은 왕실을 넘어서 사대부, 중인을 비롯하여 서민층까지 확대되었다. 수요층 확대에 의해 이 시기에는 다양한 기명이 생산되기 시작한다. 또한 문방 애호문화는 조선시대 초기의 선비·사대부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양 중 하나였으나, 영·정조대에 문예부흥의 분위기에 맞춰 일반에 까지 널리 유행되어졌다고 보인다. 백자필통의 출현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투고일 2020년 09월 13일 | 심사완료일 2020년 10월 08일 | 게재확정일 2020년 10월 13일 ■

참고문헌

<도록>

국립중앙박물관, 『朝鮮時代 文房諸具』, 1992.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東洋陶磁の展開』, 大阪市美術振興協會, 1982.

<단행본>

강경숙, 『한국 도자사』, 예경, 2012.

방병선, 『조선후기 백자연구』, 일지사, 2000.

_____, 『왕조실록을 통해 본 조선 도자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장남원, 『朝鮮後期 靑畵白磁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1988

<학위논문>

곽종우, 「19세기 백자 문방구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2018.

정연, 「朝鮮時代 透刻白磁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2012.

<학술논문>

박혜선, 「조선 후기 백자 사각병의 연원과 조형 특징」, 미술사연구회 『미술사연구』37, 2019, p.111~113.

방병선, 「고종 연간의 분원 민영화 과정」, 『역사와 현실』3, 한국역사연구회, 1999.

_____, 「조선 19세기 서울의 도자」, 『도시역사문화』8, 서울역사박물관, 2009.

윤용이, 「조선시대 분원의 성립과 변천에 관한 연구 1」, 『고고미술』149, 한국미술사학회, 1981.

윤종일, 「조선후기 중인층(中人層)의 예술관 검토 - 18, 19세기 '서화론'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56, 한국사상문화학회, 2001.

정병모, 「조선시대 후반기의 경지도」, 『미술사학연구』192, 1991.

송영은, 「正祖의 도자인식과 18세기 후반 조선의 도자 생산」, 『한국학연구』49,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Abstract

A Study on White Porcelain Brush Cases in the Latter Part of Joseon

Ryu, Ju-Hyeong

A brush case is to hold brushes used to write or paint and is one of the stationery objects. A brush case was one of the stationery objects that were made in the largest amount along with Yeonjeok during Joseon. Porcelain-type brush cases were all white porcelain, and their production began in the latter part of Joseon, when white porcelain brush cases were not only made to serve practical purposes, but also cherished by classical scholars as a piece of living art to appreciate.

There were three shapes of white porcelain brush cases: circle homotype, and square. The former was made more than the latter because it was easier to make and the most convenient to hold brushes. White porcelain brush cases were also divided into the ones with no patterns and the ones with patterns. They can further be classified into Somun, Cheolhwa, Cheonghwa, Yangak, Eumgak, and Tugak according to decoration techniques. Various patterns were used including plants, animals, flowers, and geometric ones, of which plant patterns recorded the highest percentage.

The production of white porcelain brush cases became active in the latter part of Joseon, when the production of the entire white porcelain stationery objects including brush cases was more active than the previous period. The emergence of white porcelain brush cases in the latter part of Joseon holds significance in two ways: first, the introduction of the appreciation culture became visible. At the end of Ming, there was a huge trend among literary figures to make the old tradition of literary

figures' culture a part of their life, appreciate it, and enjoy it as part of their daily convention. The trend was still in vogue during the latter part of Joseon and resulted in the collection and appreciation of stationery antiques enjoyed by the noblemen. White porcelain brush cases emerged in the latter part of Joseon and made the introduction of this appreciation culture visible.

Secondly, it represented the popularization of white porcelain. In the latter part of Joseon, white porcelain was characterized by the Sabeon and privatization of branches, which created an opportunity for porcelain, which used to be restricted only to the ruling class, to spread to various social classes. White porcelain brush cases emerged and mass produced for these reasons.

Key Words : Latter Part of Joseon, White Porcelain, White Porcelain Brush Cases, Brush Cases